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자유롭게 본다는 것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듣고 독송하는 <관아심경>은 <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지혜, 그 핵심이자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관아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조별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심에,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함을 통찰하시고, 일체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셨다.” 너무 익숙한 구절 같겠지만, 이 속에는 수많은 곡절과 최상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그야말로 일체의 삶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율을 했고, 이 말에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따라 오신 분들은 이 지혜의 그림자라도 엿보았을 것입니다. 아직 고개를 가웃하는 분들을 위해 무던 허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볼까 합니다.

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계(法界)가 여여한데, 그게 왜 없다고들 하시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空)이란 자기 이해와 관심의 탈각을 뜻합니다.

공(空)은 세계에 개입하는 주관적 태도, 바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공(空)을 이해시키겠다면서 현대물리학의 성과를 끌어들이어 아원자 세계의 빈 공간이니 쿼크니 하는 어법을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불교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심만 팔천리도 그런 심만 팔천리가 없습니다. 공(空)은 무아(無我)와 동의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색(色)과 공(空)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방해받지 않으면서 나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공(空)인 색(色)의 세계란 번역하자면, 자아에 의해 오염되거나 굴절되지 않은, 나아가 인류의 집단적 환상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세계(法界), 있는 그대로의 세계(眞如)입니다.

그 여여(如如)한 세계는 바로 코앞에 역

력히 있기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만큼 아득히 먼 것도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무시(無明)의 무명(無明), 즉 자기관심의 색안경을 벗어던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가 불교 전체를 수놓고 있는 역설의 진원지입니다. 불도(佛道)는 너무 쉬우면서도, 또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고각하(照觀脚下), 발뒤꿈치 한번 돌리면 환하게 열리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역경을 뺄까

(相)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만 욕망과 관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불교는 그 좁은 세상을 벗어나 자유롭게 창공을 날고, 거기서 독수리처럼 세상을 조견(照見)하려는 ‘조감(鳥瞰)의 권고’입니다. 이 조감이 무슨 이득을 주느냐고요. 그 바라봄으로 하여, 오직 그 통찰을 통해서만 인간은 일체의 고통과 번민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싫어하며, 나를 찬양했거나 모욕했고, 내가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스타일에,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인상에, 습관에, 또 내가 존경하는 지식 혹은 내가 경멸하는 지적 수준에, 내가 샘내는 부귀 혹은 내가 천시하는 가난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득을 준 사람, 혹은 줄 사람 또는 내게 해를 끼친 사람, 혹은 기척 사람...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만 상대와 나는 관계를 맺습니다. 아내, 남편, 아이, 이웃, 나라, 지도자나 정

내의 젖은 손이나 남편의 어깨 위에 앉은 비듬을 볼 수 없습니다.

20세기 현대 철학을 이끈 하이데거는 인간의 근본 조건을 바로 이 염려(Sorge)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무시(無明)의 마음 밑 바닥에 깔린 이 불안의 중심을 통찰하고, 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이미지를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의 생생한 접촉을 잃고,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놓치고 맙니다. 이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매체로 도피합니다. 술과 도박이며 외도뿐이 아닙니다. 책과 TV, 극장과 공연장, 미술관으로 가는 발걸음 속에도 그 도피가 은밀히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창공을 나는 새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무엇보다 ‘사람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본다면, 우리는 미술관이나, 애완전에 그토록 몰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답잖은 강의를 들겠다고 귀한 시간을 쪼개 신문이나 붓다뉴스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내 욕망과 기대를 통해 아내와 남편, 가족과 친구들을 평가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미지(相)를 버리고 실제(法)와 만나십시오. 아내의 젖은 손을 잡아주고, 남편의 젖은 어깨에 묻은 비듬을 털어주십시오.

“네가 왜 이런 일을 해 주지 않지?”라는 불평과 기대를 접고, “내가 무슨 위로를 주고, 무슨 힘을 보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까?”를 생각하십시오. 생각 하나가 우주의 균형을 바꾸고, 불가사의한 기적을 이루어짐에 만들어 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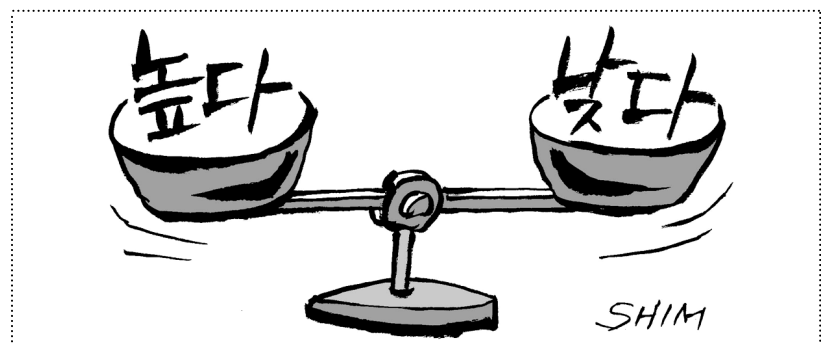
안아도 안아도 아득한 아내의 허리

고 피를 태워도 여전히 아득한 이 소식을 어찌 하오리까.

관견(管見), 대롱으로 보는 세상
관자재보살은 바로 그것을 성취한 사람, 즉 ‘이제는 자유롭게(自在)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분을 뜻합니다. 자유롭게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본다는 것은 전방대 위의 망원경처럼 사방팔방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으로부터 벗어나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관견(管見)이란 말이 적실히 말해 주듯,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관심이라는 좁은 대롱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태의 다른 측면은 물론이고, 전체를 보기는 더욱 더욱 아득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통찰력, 즉 일체지(一切智)는 여래와 부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생들에게 세상은 모두 나(我)의 이미지



우리는 사람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상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까마득히 멀어보기 쉽습니다. 시인 고은은 이렇게 읊은 적이 있습니다. “안아도 안아도 아득한 아내의 허리...”

우리는 바로 앞에 선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자기 욕망의 투영인 ‘이미지(相)’를 통해 그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어렵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하거

치지 않, 대상은 달라도. 흡사 카메라가 서로 다른 피사체를 찍듯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때란은 가깝거나 멀거나 꼭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날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눈멀어 있다면, 우리는 황혼의 저녁이나, 뜰에 핀 꽃, 아

주장사파라...

55 석두희천 선사(石頭希天)의 ‘계합’



조태호

The comic panels show a dialogue between a monk and a layman. The monk asks questions about the concept of '계합' (Kye-hap), which is explained as a state of being free from attachment and dualistic thinking. The layman expresses various doubts and misunderstandings, such as thinking of it as a goal to be achieved or a state of mind. The monk explains that it is a natural state of being, not something to be forced or achieved through effort. The dialogue concludes with the layman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the monk smiling.

석두희천(7100~790): 중국 광동성 단주 출신. 혜능에게 배운 뒤 청원행사에서 지도 받음. 향산에게 바위에 앉지를 짓고 수행함. 제자는 약산 유헌.

네티즌 교리문답

“삼법인의 내용과 순서가 왜 다른가요?”

문 초기불교에서 삼법인은 분명히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 제법무아(諸法無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법인(法印)이라 결정해 놓은 것을 바꿔 버리고, 일체개고를 열반적정으로 또 순서도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등 바꿔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whoami555)

답 1: 삼법인이란 위에 열거한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혹은 열반적정을 말합니다. 물론 법의 도장이라는 의미는 진리라는 뜻과 같은 것이지만, 그런데 어쩌서 일체개고도 되고 열반적정도 되느냐, 무슨 법의 도장이 바뀌느냐가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는 바뀐 것이 아니고 일체개고가 열반적정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생령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어려움이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이 남으면 저것이 부족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깨닫고 나면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어 괴로움이다 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개고는 곧 열반적정인 것입니다. 고뇌의 불길기 꺼진 곳에 열반란만이 존재하는 적절한 상태로 고요하게 된다는 것으로 일체개고와 열반적정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개고를 벗어나면 열반적정이고 열반적정을 벗어나면 일체개고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개고와 열반적정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심하게 법인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체개고와 열반적정이 둘이 아닌 것으로 이리나 저리나 삼법인이 맞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어렵게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김치)

답 2: 만유(萬有)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변화하는 그것에는 나라고 할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버려야 할 때 고통이 되고 괴롭습니다. 또 그런 줄 알고 열반의 경지를 득해 평안함을 얻으려는 의미이나 일체가 고통이라고만 하면, 수행자는 한 법도 없다는 공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도로서 행하라는 의미의 열반적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대와 때에 따라서 쓰임은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근본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삼법인이든 사법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갈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2	9		10
3	11			4	12
			13		
	5	14		15	
				6	

정답은 19면에

상식퍼즐

가로
1. 손으로 던지는 근접 전투용의 소형 폭탄 2. 전복 남원에 있는 누각과 정원으로 이몽룡이 선춘향을 처음 본 곳 3. 깊은 밤 4.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곳 5.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음을 뜻하는 사자성어 6. 강철로 나사처럼 만든 탄력이 강한 물건.

세로

1. 여우가 죽을 때 제 살던 굴 쪽을 향해 죽는다는 고사성어 7. 석탄을 캐내는 광산 8. 풀이나 자기로 만든 문방구로 먹을 기는데 쓰임 9. 대천의 순우리말 10. 광무연대에 생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극장 11. 밤에 밝이는 시장 12.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 한다'는 고사성어로 불가능을 뜻함 13.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사람 14. 조선시대에 소과의 종장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 15. 사람이나 물건 등을 쓰거나 부림.